1.

저의 가장 큰 고민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과 공부를 하며 코딩에 관심이 생겼고, 이에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던 중 웹개발자라는 직업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웹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혼자 공부하고자 하였지만, 생소한 내용으로 인해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백투스꾸를 통해 멋쟁이사자처럼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스에서 느꼈던 분위기는 멋쟁이사자처럼이라면 그 어떤 곳에서보다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멋쟁이사자처럼에 대해 알아보면서, 웹개발에 초점을 두고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또한, 웹개발을 세가지 트랙으로 나눠 제공한다는 점에서 제가 정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멋쟁이사자처럼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라 생각되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1.

최근 웹개발자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웹개발 중에서도 프론트엔드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백엔드가 아닌 프론트엔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화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평소 취미인 포토샵과 일러스트 등을 활용하여 프론트엔드를 디자인까지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프론트엔드에 대한 공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프론트엔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라곤 전공 수업 시간에 배웠던 오픈 API 등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아직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멋쟁이사자처럼을 통하여 프론트엔드의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으로 직접 프론트엔드를 개발하고 해당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까지 학습하면서 제 꿈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3.

저는 1,2학년 동안 프레시맨가이드 활동을 했습니다. 프레시맨가이드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활동은 팀빌딩이었습니다. 저는 운영진으로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팀원들의 효과적인 팀워크를 이끌어내야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운영진들과의 협업 또한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번부터 율전 캠퍼스와 함께 행사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행사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했고, 기본적인 틀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새롭게 구상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로 다른 운영방식으로 인해 율전 캠퍼스의 운영진과 수차례 갈등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멋쟁이사자처럼에서 하게 될 활동 역시 대부분이 낯설고 당황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협업을 하게 된다면 서로 의견에 부딪히는 경우 역시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팀빌딩이라는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느끼고 배웠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사전과제를 하던 중 갑자기 ATOM 프로그램이 실행 자체가 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검색 결과, 사전과제에 주석을 달고자 하는 욕심에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잘못 건드린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검색을 해보아도 해결방법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지인의 컴퓨터를 빌려 거의 처음부터 다시 사전과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제 실수로 인해 사전과제를 해결하는데 들어간 저의 노력과 시간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여곡절을 겪고 멋쟁이사자처럼에 지원한 만큼 활동을 잘 해내겠다는 의지가 매우 단단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과학생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에서는 중요한 일을 맡지 않아 할일이 크게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업 역시 대부분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멋쟁이사자처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